

2018 인터서브 연례보고서



# 2018 Annual Report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역사



Bob Morris 부부와 함께

이제 스물 아홉 청년 한국 인터서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2018년 10월 14일부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일주일 동안 국제 인터서브 리더스 컨설팅이 열렸습니다. 저도 한국 인터서브 대표를 비롯한 몇 분의 파트너들과 함께 참석하여 여러 나라 곳곳에서 모인 분들을 만나 교제하고 말씀도 듣고 토론도 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인터서브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며 감동을 받았고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가 아니라 늦더라도 역할을 맡은 헌신자들이 함께 가는 선교회라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1852년, 인도의 콜카타에 파송된 두 여성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인터서브의 167년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설립자의 이름이 빛나고 있을 그 자리에 늘 주님이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귀한 분들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밥 모리스 Bob Morris 는 캐나다 이사장으로, 이번 대회에서 모세의 정체성을 시리즈 메시지로 전하신 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SIM 소속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지만 인터서브를 통해 50년 동안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저도 SIM 선교사로 나이지리아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남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태매 선교사님의 회고에 의하면 한국에서 인터서브가 시작되는데 부정적이었던 국제 인터서브의 당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회가 끝나갈 무렵 그가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자, 그의 50년 사역을 기념하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마침 한국 파트너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가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배려되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우르르 올라와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재치있게 '한국이 앞으로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50년 동안 변함없이 인터서브 가치를 지켜온 분들은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라, 평범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국제 인터서브의 역사 속의 카이로스적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자체 생존이나 세력 확장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 작아지고 낮아지는 결정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가는 일은 가슴 뭉클한 감동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33절에 기록된 역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뿔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두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상 12:30). 그의 동기도 불순하였지만,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적당히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비슷하게'(12:32), '자기 마음대로'(12:33)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하며 공동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이것들을 주님의 가르침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터서브가 지켜온 가치입니다. 본질적 가치를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2018년을 되돌아보면서 인터서브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여겨온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19년을 열어 가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인터서브 가족들을 위해 바울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 love 을 지식 knowledge 과 모든 총명 depth of insight 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best 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pure & blameless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빌립서 1:9-11

# 2018년 하이라이트

1

## 다양한 직업 신입 선교사들의 합류

지난 해도 비즈니스, 의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동남아, 힌두, 이슬람권으로 나아가는 삼십 대의 선교사들 7명이 인터서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

## MK 호스텔 운영 시작

MK 호스텔은 국내를 방문하는 MK 들이 머물 수 있는 가정입니다. 5명의 MK와 12명의 파트너들이 132일간 Hostel을 사용하였습니다

3

## 선교사 월 후원금 11% 상승

펀드레이징 교육의 시작과 적극적인 후원교회 연결로 선교사 한 달 후원액의 11.6%가 상승하였습니다.

4

## 본부 운영 정책 회의 시작

2018년 2월 21일~23일 24명의 선교사와 3명의 이사, 3명의 본부 스텝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책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

## 인터서브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www.interserve.kr](http://www.interserve.kr)

인터서브 웹사이트가 새롭게 재정비됨에 따라,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인터서브 정체성에 관한 자료 정리가 완성되었습니다.

### 조샘 대표 인사



지난 한 해도 저희 인터서브와 함께 해주신 선교사들과 프랜차이즈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8년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Life as Mission! 인터서브는 지난해도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준비해 오신 선교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먼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삼십 대의 선교사들이 인터서브 가족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곳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Life as Mission 스킴 역시 선교한국과 연합으로 여러 지역 교회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 기존의 선교사들의 멤버케어를 위해 대표와 부대표들이 현장을 다섯 차례 방문했고,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호스텔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부모님들을 수직 차례 방문하고 어버이 행사를 두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 전망



## 선교사 재정을 위한 펀드레이징 시작

선교사들 각 unit 당 매달 모이는 후원금은 23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의 재정 후원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시작합니다.

30

##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기념

2020년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체의 공동체성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총체적 선교를 나눌 세미나와 출판물을 계획합니다.



## 다음 세대 모임의 계속된 성장

이십 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다음 세대 텐트메이커" 모임 역시 한 달에 두 번씩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올해부터 대구에서도 진행됩니다. 텐트메이커로서 준비하는 첫 청년 선교사 파송. 올 7월 이슬람 국가 K 국으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 일본을 향해 열리는 문

2019년부터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국제 본부 차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두 개의 Unit 이 현지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내 미션 허브의 성장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다문화, 난민 사역, 통일 관련 사역하시는 파트너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본부와 파트너들과 프랜차이즈가 모여 함께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네트워킹하여 국내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미션허브 Mission Hub 가 "자두나무"라는 이름으로 1년에 4회 가량 모임 예정입니다.

2019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180여명의 선교사들을 돌보고 한국 내의 지역교회들을 선교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현재의 본부 재정은 여전히 약합니다. 선교사들의 생활 재정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제가 대표로서 시작할 때 함께 세웠던 4년의 목표는 "인터서브 공동체성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에는 본부 행정의 팀워크빌딩을, 2018년에는 인터서브 코리아의 거버넌스를 보다 참여적인 형태로 바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19년인 올해의 우선순위는 **파트너와 본부의 재정적 건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될 2020년은 인터서브 코리아의 3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가치를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는 재정적 공동체성에서의 성장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삶과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꿈꾸는 저희 인터서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8 인터서브 사람들

## 인터서브 선교사 현황 (2018년 4분기 기준)

총 선교사 수 **178 명** (101 units)      단기 선교사 수 **7 명** (6 units)

신입 선교사 수 **7 명** (4 units)      선교사 자녀 수 **1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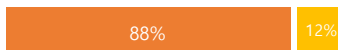
## 비율로 보는 선교사 현황 (단위 명)

선교사 남녀 비율



● 여성 선교사 **99 명**  
● 남성 선교사 **7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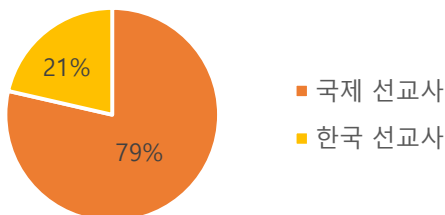
가족 구성 비율



● 가족 선교사 **157 명**  
● 싱글 선교사 **21 명**

## 국제 인터서브 현황 (2018년 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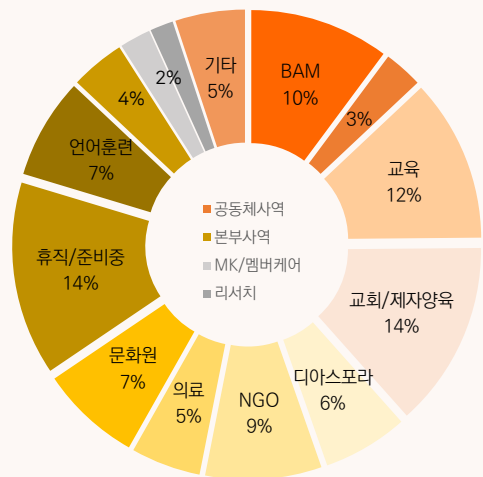
총 선교사 수 **831 명**      파송 국가 **22 국**      피파송국가 **44 국**



## 선교지 배치 현황 (2018년 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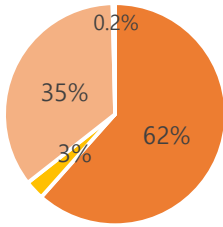
## 사역 분류 (2018년 4분기 기준)



# 2018 인터서브 재정 보고

## 선교사 재정후원 현황

(단위 원)



총 재정후원금액

**4,271,028,082 원**

● 생활비	<b>2,630,121,036 원</b>
● 교육비	<b>120,884,830 원</b>
● 지정 사역비	<b>1,504,257,662 원</b>
● 기타 사역비	<b>15,764,554 원</b>

## 선교사 Unit당 재정후원금액 (생활비+교육비)

총 Unit

**101 units**

Unit 당 월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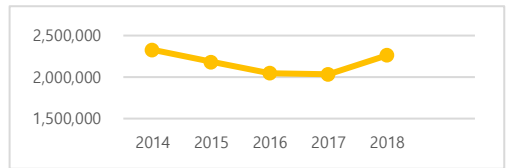
**2,269,807 원**

Unit 당 연 후원금

**27,237,682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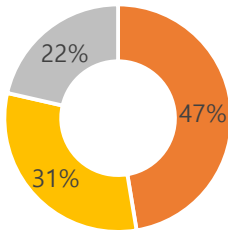
## 선교사 Unit당 월 후원액 연도별 추이

(단위 원)



## 인터서브 본부 수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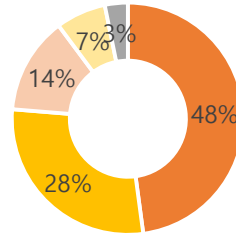
총 재정후원금액

**448,295,421 원**

● 선교사 본부후원	<b>211,369,934 원</b>
● 프렌즈 정기후원	<b>139,086,462 원</b>
● 비정기후원 및 기타 수익	<b>97,839,025 원</b>

## 인터서브 본부 지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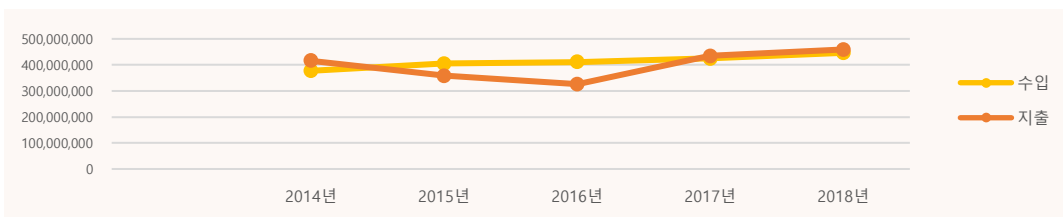
총 재정후원금액

**461,825,125 원**

● 인건비	<b>221,115,685 원</b>
● 부서 및 전략프로젝트	<b>131,284,308 원</b>
● 사무실 운영비	<b>62,401,601 원</b>
● 리더십팀	<b>32,254,549 원</b>
● 목적 기금	<b>14,768,982 원</b>

## 본부 재정 수입과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원)





## 우리가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라, 에스더 선교사는 2016년 인터서브 가족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슬람 P국으로 파송 되었습니다. P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읽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오디오 성경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들리는 성경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이유와 가난 등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열악한 기독교인들의 환경을 보고 시작한 것이 오디오 성경 사역입니다. 이곳의 언어로 성경을 녹음하고, 작은 오디오 기계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성경을 듣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하나의 말씀 기계를 제작하려면 2만 5천원이 듭니다.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주지 않고 5000원, 이들이 다섯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오디오 성경을 사려고 할 때마다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감동이 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소진하였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경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역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더 능력 있어 이 기계를 대량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용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작한 1000개의 듣는 성경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에 주셨던 것으로 한 번 더 제작을 할 수 있지만, 한 두 번의 제작으로 이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성경 제작과 보급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길 기도합니다

### 감격의 눈물

하루는 운전사로 일하는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어렵게 물어 물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를 줍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5만 루피, 한국 돈으로 약 4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돈을 모았고, 이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한 개에 2500루피를 들여 만든 오디오 성경을 자기들에게 500루피에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저희 가정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더 많이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100개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가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갈 테니, 자기 돈을 보태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오디오 성경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 겁니다.

현지인들 중에서 저에게 기부금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디오 성경을 그냥 달라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싸게 사가려고 했지, 기부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만 루피라는 큰 돈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두세 달 월급 정도 될 것입니다. 감격으로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몇 번이나 오디오 성경을 사가지고 가서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동역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구나' 하고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에 협력할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인터서브 MK 호스텔

정승연 선교사는 남편인 송기태 선교사와 함께 몽고에서 섬겼으며, 2010년에 인터서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멤버케어 팀의 일원으로 선교사 자녀 (Missionary Kids (이하 MK) 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며 2018년부터는 고국을 방문하는 청년 MK 들이 머물고 할 수 있는 호스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호스텔은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적으로는 숙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소와 가정적 케어를 제공하는 사역을 뜻합니다.

### #They comeback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모국을 떠났던 어린 자녀들이 이제 가족을 떠나 한국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복무 혹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낯선 고향 한국으로 장·단기간 방문을 오지만 일반적으로 안식관은 청년 MK들에게 사용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가끔 만나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숙이나 자취를 고려하지만 한국의 높은 물가에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는 외로움은 한국을 Home으로 여기기 어렵게 합니다.

### #인터서브 MK 호스텔

이러한 청년 MK들에게 한국에 가면 머물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인터서브 MK 호스텔을 열었습니다. 인터서브 MK 호스텔은 세가지 영역에서 케어합니다.

첫째, 장소적 케어 (Housing Care) 로 거주할 곳이 마땅히 않은 청년 MK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가정적 케어 (Family Care) 로 아직 완전이 독립하지 않은 청년 MK들에게 부모가 속한 공동체의 대리 부모를 통해 제 2의 가정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동질 그룹 케어 (Peer Care) 로 MK 들이 호스텔에서 다른 MK 들을 만남으로 동질감을 형성하며 인터서브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 #Community Experience

지난 일 년 간 다섯명의 MK들과 열 두 명의 파트너들이 132일간 호스텔을 사용했습니다. 첫 사용자는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김소명 (김삼성/최은실) MK,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함께 보내면서, 군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 정체성과 연애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더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 헤브론 스쿨 출신인 우지명 (우진호/김지현) 은 부산에서 대학 생활 중인데 서울에서 동기 모임을 할 때마다 올라와 호스텔을 이용합니다. 날씨가 항상

고 있는 그의 음악 프로듀싱 실력이 기대됩니다. 카이스트 마지막 학기를 앞 둔 박찬민 (박승룡/하윤희) 은 호스텔에서 부모님과 함께 연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귀국하신 부모님과 지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페루, 볼리비아 등 4개국 남미 여행을 곧 떠날터라 여행 준비에 분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 6주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찬민이의 작은 집은 호스텔에 마음 편히 맡겨졌습니다. 타단체 MK A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UCLA에 입학하게 될 새내기 A가 머물기로 한 숙소에 차질이 생겨 갈 곳이 없어지게 되어 지인을 통해 긴급히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이 어찌나 덥던지,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견디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가 안쓰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네 대의 선풍기 중 세 대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올 해는 에어컨을 마련하여 더 쾌적한 환경에서 MK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Blessing MK

하나님 나라의 성장 동력인 MK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갑니다. 선교사 자녀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격려하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기를 전하는 존재로, 인터서브 MK 호스텔이 그 과정을 돕는 작은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서의 인터서브를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MK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교사인 부모들에게 지금까지 순종해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마침내 여러 모양으로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란 나라 (모국) 를 떠나 파란 나라 (선교지) 에서 살다가 초록 나라 사람 (제 3의 문화) 이 되어 노란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 MK들아. 너희를 환영한다! Welcome back!



*experience*  
**Life As Miss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 1206호 (코오롱트리폴리스) Tel.031-778-7931 Fax. 031-728-4777  
www.interserve.kr Email: interservekorea@gmail.com